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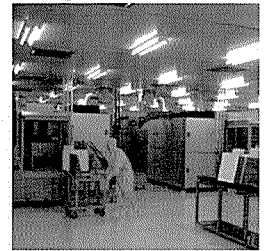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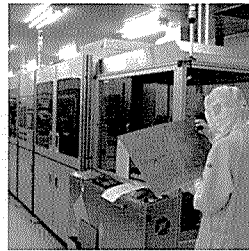
CEO Interview



Inside World—Best IT Products

— (주)두산 전자BG 이양균 부사장 —

두산전자는 해외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기능 CCLs를 비롯하여 FCCLs, OLED용 재료, Prism Film등 첨단 전자제품의 기초가 되는 전자소재의 개발 및 공급을 통해 기술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신임 CEO로써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두산전자가 CCLs(동박적층판)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소재분야에서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우선 3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맡은 바 업무를 개선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변화를 주도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이야말로 급변하는 국내외의 경영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둘째는 신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 임직원의 역량과 열정의 집중입니다.

두산전자는 그 동안 CCLs (Copper Clad Laminates)사업과 화학사업을 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고, 그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FCCLs(Flexible CCLs), Prism Film,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용 재료 등 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Vision 달성을 위해 신규 성장엔진 확보는 두산전자의 당면 과제로써 전 임직원이 역량과 열정을 집중하여 구체적이고 치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가능합니다.

셋째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조하는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두산전자는 매년 초 경영설명회를 통해 전 임직원에게 전년도 경영실적 및 당해 년도 사업계획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황 및 외부 경영환경에 대해 설명하

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매월 경영실적 설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정확한 상황을 노사가 공유함으로써 상호신뢰를 보다 굳건히 하여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산전자에 대해 소개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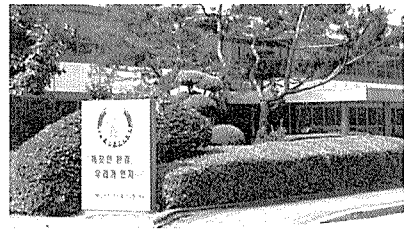
아날로그 시대를 대표하는 흑백 TV를 시작으로 디지털가전, 휴대폰, FPD (Flat Panel Display), PC 및 다양한 복합기의 보급을 통한 디지털 세상이 펼쳐진 불과 30여년 동안 국내외 전자산업의 외형과 기술수준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 성장의 근간에는 CCLs (Copper Clad Laminates), Flexible CCLs,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용 재료, Prism Film 등 전자제품의 핵심 소재 공급을 통해 국내 소재산업을 선도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두산전자가 있었습니다.

두산전자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자제품의 슬립화, 복합화, 고기능화에 적합한 CCLs 개발을 위해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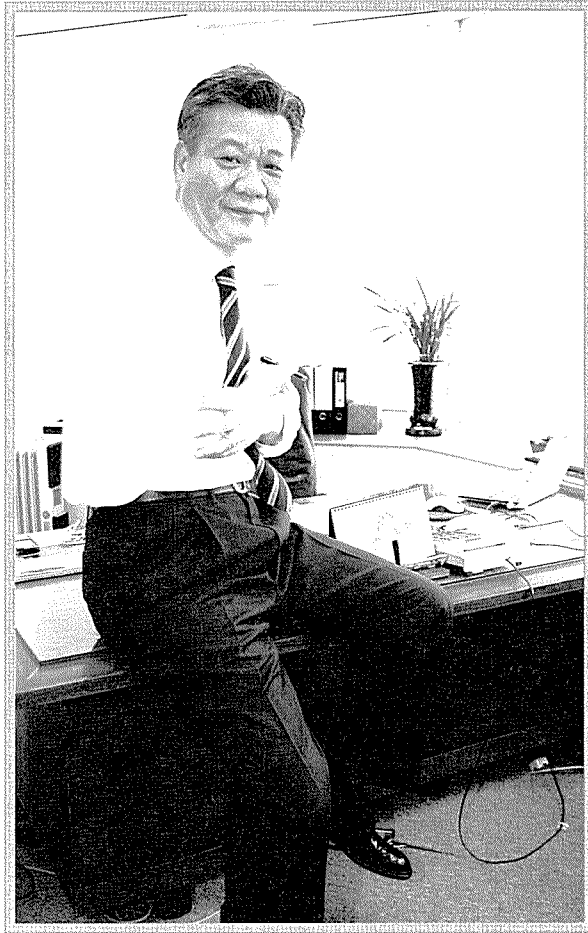
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Build-up용 CCLs 및 초고다층용 CCLs에서부터 최고 품질의 Package용 CCL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CCLs사업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FCCLs 사업에 접목함으로써 기판 소재분야를 강화했으며, 광학필름, OLED용 소재, LCD 및 PDP용 재료를 중심으로 하는 Display부문의 육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Display 소재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주)두산 전자BG 연혁



- 2005.06 증평공장내 매스랩 제2공장 준공
- 2005.04 한국 PCB기술 대상(소재부문) 수상
- 2004.12 FCCL 익산공장 준공
- 2003.08 FCCL 기술도입 계약 체결
- 2000.05 안산공장 준공
- 2000.05 QS-9000 인증획득
- 1999.01 본사 사무실을 두산타워로 이전
- 1998.10 제 26회 무역의 날 「1억불 수출탑」 수상
- 1998.08 (주)두산으로 흡수합병, 전자BG로 출범
- 1998.07 코오롱전자 인수 (김천공장)

- 1997.03 ISO 14001 획득 (KSA-QA)
- 1996.08 익산공장 준공
- 1996.02 구미, 증평공장 환경 친화적 기업 지정
- 1995.12 ISO 14001 시범인증 획득
- 1993.11 ISO 9002 인증획득 (BSI-QA)
- 1988.10 증평공장 준공
- 1986.01 상호변경(한국오코→두산전자주식회사)
- 1980.03 구미공장 준공
- 1974.02 회사설립 (한국 OAK공업주식회사)



이양균
(주)두산 전자BG 부서장

- 1980.02 고려대학교 화학과 졸업 및 두산전자 입사
- 2000.09 (주)두산 전자BG 상무
- 2004.05 (주)두산 전자BG CCL사업부장
- 2005.01 (주)두산 전자BG 부서장
- 2006.02 (주)두산 전자BG BG장

두산전자는 국내 5개 공장을 통해 CCLs, FCCLs, OLED용 재료, Prism Film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미국, 독일 등 해외법인 및 지사를 통해 세계 16여 개국에 수출하여 Sony, Hitachi, Toshiba, IBM, Philips, AT&T, Thomson, Siemens 등 세계일류 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산전자의 지난해 경영실적 및 06년 경영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계 전자 및 IT산업 경기가 2004년 10월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2005년 상반기까지 침체가 지속되었으나, 하반기부터 HHP, LCD등 주요 IT산업의 호전으로 관련 MLB 소재산업이 성장 추세로 반전되면서 2005년에는 4,400억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006년에는 고기능 소재 및 마스크 판매 증대, 원가절감 활동 및 수율 개선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신사업의 성공적인 시장 정착을 통해 매출 4,7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CL사업의 수익성 개선, 신사업의 성공적인 정착, 신규 성장엔진 발굴, 조직역량 강화 등 4가지 전략 방향 하에 Display 및 PCB소재 분야의 신규 성장엔진 발굴, 고기능/고부가 제품 개발 및 판매 확대, 신사업의 양산라인 안정화, 거래선 개발 및 품질 승인을 통한 매출 확대, CCLs사업 생산성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구축 등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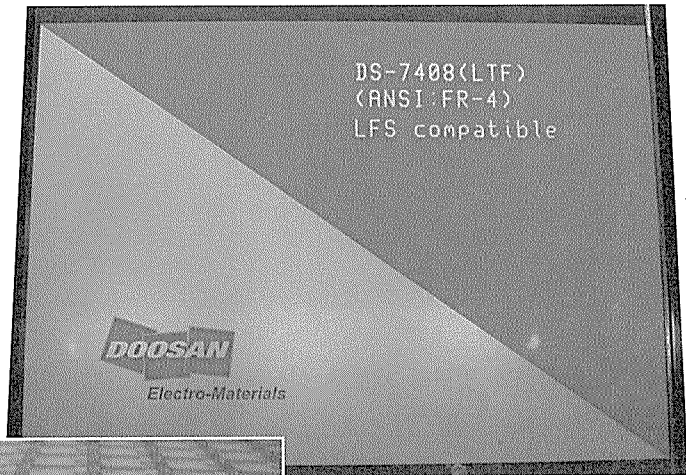
두산전자의 Vision 및 중장기 Roadmap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두산전자는 2004년 "가치창출을 선도하는 전자소재 전문기업" 이라는 Vision을 정립하고 CCLs 및 화학사업 뿐만 아니라, CCLs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FCCLs, OLED용 재료, Prism Film등 첨단 전자제품의 기초가 되는 전자소재의 개발 및 공급을 통해 기술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중국업체의 저가 CCLs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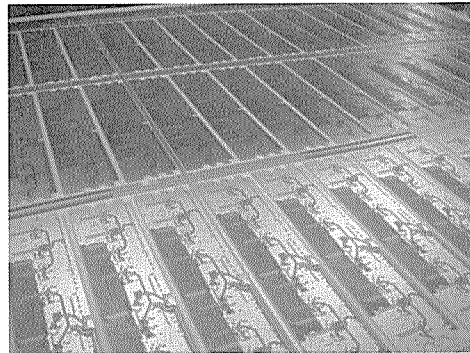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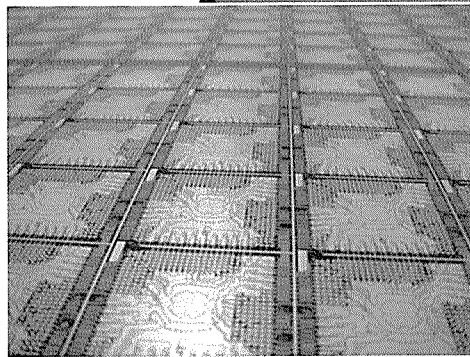


는 Package용 소재, 초고다층기판용 소재, Build-up용 소재 및 FCCLs 위주로 기판용 소재의 품질 및 기술력 강화를 통해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를 추진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Display소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광학 Film, LCD 및 PDP용 재료, OLED용 재료를 중심으로 하는 Display부문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국내의 CCL산업의 시장동향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2005년 하반기부터 회복된 전자산업 경기는 200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월드컵 특수, FPD (Flat Display Panel)에 대한 수요 확대, 중남미, 북유럽 등 신흥시장의 휴대폰 수요 확대, 반도체 End -Market의 다변화에 따른 수요 확대 등 CCLs 산업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전자제품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CCLs산업은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CCLs의 주요 원자재인 동박, G/F (Glass Fabric), Chemical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과 중국 및 대만 CCLs업체의 저가공세로 인해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CLs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활동을 통한 Cost Leadership 확보, 핵심 인재육성 및 개발, Package용 소재 및 초고다층용 소재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시장 선점이 필요합니다.

두산전자는 CCL사업의 수익성 개선, 신사업의 성공적인 정착, 신규 성장엔진 발굴, 조직역량 강화 등 4가지 전략 방향 하에 Display 및 PCB소재 분야의 신규 성장엔진 발굴, 고기능/고부가 제품 개발 및 판매 확대, 신규사업의 양산라인 안정화, 거래선 개발 및 품질 승인을 통한 매출 확대, CCLs사업 생산성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구축 등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